

자매들을 위한 공과

제12과

온유하고 정숙한 영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함

성경: 벰전 3:3-4, 레 13:47-59

- I. 베드로전서 3장 3절은 “여러분은 머리를 땅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겉치장을 하지 말고”라고 말한다.
- A. 하나님은 여자들의 머리털을 그들의 영광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들의 복종의 표시가 되게 하셨다 - 고전 11:15, 아 4:1, 6:5, 7:5.
 - B.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의 사치스럽고 부패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오용하여, 자신의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욕망을 가지고 금이나 그 외의 값비싼 것들로 지나치게 머리를 장식하였다.
 - C. 그리스도인인 아내들은 거룩한 여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판결하신 이러한 실행을 절대적으로 삼가야 한다.
- II.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 A. 우리 마음은 영의 주요 부분인 양심과 혼의 각 부분인 생각,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 - 히 4:12.
 - 1.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의 영이 그 중심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은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다.
 - 2. 숨겨진 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있는, 외적으로 땅고 달고 차려입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온유하고 정숙한 영은 머리와 금붙이와 옷과 대조를 이룬다.
 - 3.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장해야 할 것은 그들의 속 존재인 마음에 숨겨진 사람, 곧 온유함과 정숙함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이다.
 - 4. 이것이 썩어 없어질 머리카락과 금붙이와 옷으로 장식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썩지 않을 장식이다. 이러한 영적인 장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다 - 벰전 3:4.
 - 5. 온유하고 정숙하게 된 영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소유해야 할 일종의 장식이다.
 - B. 베드로전서 3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곧 가장 어여쁜 장식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다.
 - 1. 이 영이 곧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다. 이 중점은 우리의 영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2.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여쁘게 되려면, 우리 존재의 깊이들에서부터 어여쁘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만 외적으로, 즉 물질적인 방식으로 어여빠서는 안 된다.
 - 3. 우리는 내적으로, 즉 숨겨진 사람 안에서 어여빠야 한다. 이 사람은 사람의 눈에는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숨겨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숨겨진 사람, 곧 온유하고 정숙한 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여쁘기 때문이다.
 - C. 아내들이 배워야 할 하나의 엄중한 공과는 자기 남편과 다투지 않는 것, 즉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매들은 자기 남편과 말다툼을 할 때, 자신에게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1. 그러나 자매가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온유하고 정숙한 영을 유지하고 있다면, 화를 내지 않을 것이고, 더욱욱 자기 남편과 말다툼하지도 않을 것이다.
 - 2. 베드로는 체험과 관찰을 통해 결혼 생활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온유하고 정숙한 영으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 III. 베드로의 말은 많은 자매들이 땅은 머리와 금붙이와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는 자매들의 옷 입는 방식에 대해 기쁜 느낌이 없었다 - 벰전 3:3.

- A. 머리를 땀고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은 합당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복장도 아니다.
- B. 이것은 자매들이 옷 입는 것에 주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만약 어떤 자매가 부주의하고 단정하지 않으며 불결한 방식으로 옷을 입는다면, 그것은 그녀가 부주의하고 느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베드로의 진심은 이러한 것이 아니었다.
- C.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자매들이 머리를 땀고 금붙이를 달며 값비싼 옷으로 자신을 장식해서는 안 되고, 그 대신 온유하고 정숙한 영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D. 이것은 또한 틀림없이, 사람이 하나님께 처리받은 데서 나온 결과일 것이다.

IV. 우리는 의복에 대한 원칙들을 보아야 한다.

- A. 의복의 원칙은 가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가리지 못하는 어떤 옷도 입어서는 안 된다 — 비교 창 3:21.
- B.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뚜렷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을 금한다. 성의 구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 — 신 22:5.
- C. 우리의 의복에는 반드시 거룩함의 표시가 찍혀 있어야 한다. 즉 우리의 의복 위에 성령의 도장, 곧 바르는 기름의 도장이 있어야 한다 — 례 8:30.
- D. 그리스도인의 의복에 관한 한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입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옷감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 있다.
- E.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들이 입은 옷에 눈길을 끌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 F.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입는 옷은 그들의 신분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초라하게 입지도 말고, 너무 잘 입지도 말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복장이 너무 화려하다거나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 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의복은 반드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 G. 나아가, 우리의 의복이 우리 자신의 의식을 알개워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입고 있는 것을 의식한다. 이것은 그들의 복장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

V. 하나님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 특별한 지침을 주지 않으시지만, 두 가지 원칙이 제시되는데, 바로 우리의 의복은 반드시 합당해야 하고, 결코 사치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A. 우리는 무엇이 합당한가에 대한 특정한 표준이 있다고 감히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혹은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의복이 합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내적인 느낌이 있다.
- B. 어떤 특정 의복이 사치스러운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것이 사치스러운지, 그리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내적인 느낌이 있다.
- C.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죽은 규례를 하나하나 주지 않으신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 속에 그분의 살아 있는 생명의 법을 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각각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신다(히 8:10). 옷을 입고 장식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내적인 인도를 기꺼이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VI. 우리는 우리의 옷을 주님께 가져가서 그것들을 하나씩 처리해야 한다 — 례 13:47-59.

- A. 여러분의 옷들 중 어떤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느낌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검 사받아야 한다. 오늘날 주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께 그러한 옷을 입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여쭙어야 한다.
- B.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은지 말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라. 여러분은 반드시 모든 것을 주님께 직접 가져가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도록 해 드려야 한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께 이렇게 여쭙어야 한다. “저는 이제 믿는 이가 되었습니다. 이 옷이 괜찮으신지요?”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자매들의 단장

베드로전서 3장 3절은 “여러분은 머리를 덮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걸치장을 하지 말고”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여자들의 머리털을 그들의 영광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들의 복종의 표시가 되게 하셨다(고전 11:15, 아 4:1, 6:5, 7:5).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의 사치스럽고 부패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오용하여, 자신의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욕망을 가지고 금이나 그 외의 값비싼 것들로 지나치게 머리를 장식하였다. 그리스도인인 아내들은 거룩한 여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판결하신 이러한 실행을 절대적으로 삼가야 한다.

여러 해 전에 한 젊은 여성이 엔타이(煙臺)에 있는 교회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적이고 현대적인 법학도였다. 그녀가 처음 집회에 왔을 때 그녀의 머리는 마치 높은 탑처럼 다듬어져 있었다. 나는 그녀가 계속해서 집회에 올 때마다 그 탑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아 차렸다. 결국 그녀가 더 많은 집회를 참석한 후에 그 탑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며, 주님은 머리 모양을 내는 방식에 관하여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마음에 숨겨진 사람 — 온유하고 정숙한 영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마음에 숨겨진 사람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다. 우리 마음은 영의 주요 부분인 양심과 혼의 각 부분인 생각,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히 4:12).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의 영이 그 중심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은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다. 숨겨진 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있는, 외적으로 덮고 달고 차려입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온유하고 정숙한 영은 머리와 금붙이와 옷과 대조를 이룬다.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장해야 할 것은 그들의 속 존재인 마음에 숨겨진 사람, 곧 온유함과 정숙함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이다. 이것이 썩어 없어질 머리와 금붙이와 옷으로 장식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썩지 않을 장식이다. 이러한 영적인 장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글에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마음에 숨겨진 이 사람은 무엇인가? 그것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다. 온유하고 정숙하게 된 영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모든 아내들이 소유해야 할 일종의 장식이다.

나는 베드로가 그의 체험에 따라, 또한 그의 관찰에 따라 이 서신을 썼다고 믿는다. 그는 그리스도인인 아내들의 영이 종종 온유하고 정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유한(meek)’과 ‘정숙한(quiet)’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많은 때에 그리스도인인 아내의 영은 온유하지 않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의 남편과 말다툼을 할 때, 여러분에게는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 있는가? 아내들이 자기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심지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제안하지만 아내는 동의하려 하지 않는다. 남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지만 아내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의 결과는 논쟁이다.

인생에 대한 많은 체험이 있는 나이 든 사람으로서, 나는 아내가 자기 남편과 말다툼하는 것이 반역의 표시임을 증언할 수 있다. 무의식중에 그리고 잠재의식 중에, 그녀의 깊은 속에는 거스르는 영이 있다. 그녀가 거스르는 영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아내가 기꺼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자 한다면, 왜 남편과 논쟁하겠는가? 아마 그녀는 자신이 그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문제들을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논쟁하는 것은 여전히 불필요하다.

아내들이 배워야 할 하나의 엄중한 공과는 자기 남편과 다투지 않는 것, 즉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매들은 자기 남편과 말다툼을 할 때, 자신에게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자매가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온유하고 정숙한 영을 유지하고 있다면, 화를 내지 않을 것이고, 더욱 자기 남편과 말다툼하지도 않을 것이다. 베드로는 체험과 관찰을 통해 결혼 생활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온유하고 정숙한 영으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이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 곧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사실상 두 사람이 있다. 첫째 사람은 우리 몸과 함께하는 우리 혼 안에 있다. 이것은 겉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숨겨진 사람이다.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영이 생각, 감정, 의지와 양심으로 구성된 우리 마음의 한 가운데 숨겨진,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의 영이 온유하고 정숙하면,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틀림없이, 우리의 영이 온유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온유할 것이다.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는 정숙하다. 영의 온유함과 정숙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단장이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22장, 208-211쪽)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 장식”을 말한다. 이러한 영은 온유할 뿐 아니라 정숙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가치 있는 장식이다. 이것은 또한 틀림없이, 사람이 하나님께 처리받은 데서 나온 결과일 것이다.(생명의 체험(하), 160쪽)

우리 영은 마음에 숨겨진 사람임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우리의 영이 우리 마음에 숨겨진 사람임을 계시한다. 숨겨진 사람은 온유하며 정숙한 영이다. 우리의 영이 온유하고 정숙할 때, 그것은 숨겨져 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이 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우리의 물질적인 몸은 외면상의 사람이고, 우리의 혼은 표현되고 나타난 사람이며, 우리의 영은 숨겨진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3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존재 중 가장 아름다운 부분, 곧 가장 어여쁜 장식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다. 이 영이 곧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다. 이 중점은 우리의 영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여쁘게 되려면, 우리 존재의 깊이들에서부터 어여쁘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만 외적으로, 즉 물질적인 방식으로 어여빠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내적으로, 즉 숨겨진 사람 안에서 어여빠야 한다. 이 사람은 사람의 눈에는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숨겨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숨겨진 사람, 곧 온유하고 정숙한 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여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적해야 할 것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이 한 면으로는 숨겨진 사람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지만, 또 한 면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 사람의 눈에는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러므로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 가져야 할 참된 아름다움이다.(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236-237쪽)

값비싼 옷과 온유함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머리를 땅과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걸치장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렇게 자신을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성경 중 오직 이곳에서만 ‘거룩한 여인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거룩한 남자들’이라는 문구는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오직 이곳에서만 ‘거룩한 여인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거룩한 여인들은 이와 같이 자신을 단장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했다. 거룩한 여인들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으로 자신을 단장했다

베드로의 말은 많은 자매들이 땅은 머리와 금붙이와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는 자매들의 옷 입는 방식에 대해 기쁜 느낌이 없었다. 머리를 땅과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은 합당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복장도 아니다. 이것은 자매들이 옷 입는 것에 주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만일 자매들이 부주의하다면, 그것은 그들의 성격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뜻이다. 만약 어떤 자매가 부주의하고 단정치 않으며 불결한 방식으로 옷을 입는다면, 그것은 그녀가 부주의하고 느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베드로의 진심은 이러한 것이 아니었다.

베드로는 자매들이 그가 말한 방식으로 머리를 땅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머리를 땅고”라는 문구는 원문에서 머리를 여러 가지 유행하는 모양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유사 이래로 머리를 땅는 것에도 수많은 유행들이 있었다. “금붙이를 달거나”는 장신구를 몸에 건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옷을 차려입는 것”은 아마 많은 색상이나 모양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자매들이 머리를 땅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걸치장을 하지 말고, 대신에 온유하고 정숙한 영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위치만 니 전집,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 60-61쪽)

의복

은혜의 시대에서

디모데전서와 베드로전서의 참고 구절들은 은혜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비싼 장신구보다 내적인 영적 미덕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 절들은 특별

히 자매들에 한하여 주어졌다. 왜냐하면 자매들이 장식하는 문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 특별한 지침을 주지 않으시지만, 두 가지 원칙이 제시되는데, 바로 우리의 의복은 반드시 합당해야 하고, 결코 사치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무엇이 합당한가에 대한 특정 표준이 있다고 감히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의복이 합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느낌이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놀랍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우리의 의복이 합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내적인 느낌이 있다. 사치스러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하나님은 금과 보석과 값비싼 물건들을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기시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착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어떤 특정 의복이 사치스러운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것이 사치스러운지, 그리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내적인 느낌이 있다.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죽은 규례를 하나하나 주지 않으신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 속에 그분의 살아 있는 생명의 법을 넣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각각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신다(히 8:10). 옷을 입고 장식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내적인 인도를 기꺼이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성경의 중점 진리, 3권, 272쪽)

옷을 입는 몇 가지 원칙 개인의 자유가 있음

나는 의복에 관한 개인의 의견을 통괄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내게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똑같이 입거나, 모든 자매들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전적으로 무시하라거나, 모든 형제자매들이 가장 일반적인 천으로 된 옷이나 가장 낮은 수준의 옷을 입기를 바라는 뜻이 없다. 성경에는 그러한 계명이 없다.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에 그는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의 속옷은 이어 붙인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의복에 관한 한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입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직물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 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게 해야 함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들이 입은 옷에 눈길을 끌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입은 옷이 항상 사람들의 주의를 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입은 옷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 꽃 한 다발을 꽃병에 꽂았을 때 사람들이 그 꽃보다 꽃병을 더 주의한다면, 그 꽃병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옷차림은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의복이 우리의 어더함을 대신 차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사람이 입은 옷이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람의 옷을 주의하게 하고 그 사람 자체를 잊어버리게 할까 봐 두렵다. 이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옷차림은 신분에 어울려야 함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입은 옷은 그의 신분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초라하게 입지도 말고, 너무 잘 입지도 말라. 값비싼 의복이 주의를 끄는 것처럼 초라한 의복 또한 주의를 끈다는 것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옷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또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옷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옷차림이 유난히 좋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또 너무 형편없이 입어서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의 옷차림은 우리의 신분에 어울려야 한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복이 과하다거나 너무 형편없다는 느낌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의 의복은 반드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

옷 입은 것을 스스로 의식해서도 안 됨

나아가, 우리의 의복이 우리 자신의 의식을 일깨워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입고 있는 것을 의식한다. 이것은 그들의 복장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럴 때 여러분은 옷걸이로 변해 버리고 그 옷이 여러분보다 중요하게 된다. 여러분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옷이 여러분을 입은 격이 된다.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그것을 주의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옷이 너무 좋거나 너무 형편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러분이 형편없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을 지나간다면 여러분은 그 옷을 계속 의식할 것이다. 또는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어도 여러분은 하루 종일 그 옷을 의식할 것이다. 이것은 둘 다 문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좋다. 보편적이면서 여러분의 신분에 어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넘어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오늘 우리가 옷차림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외모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워치만 니 전집, 50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하), 64-66쪽)

옷을 하나씩 주님께 가져가서 처리해야 함

갓 믿은 형제자매들은 옷 입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의 옷들 중 어떤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느낌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검사받아야 한다. 오늘날 주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께 그러한 옷을 입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여쭙어야 한다. 이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말라. 갓 믿은 형제자매들에게 옷은 큰 문제이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옷이 나병에 걸렸는지 어떤 옷이 그렇지 않은지를 모른다면, 옷을 제사장인 주님께 보여서 여러분이 입은 옷에 나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여러분은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서 떠나야 하고 나병에 걸린 집을 헐어 버려야 하며 나병에 걸린 의복을 태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물론 오늘날에는 태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입을 수는 없다. 많은 옷들이 나병에 걸려 있다. 많은 옷들은 고쳐져야 하는데 어떤 옷은 소매를 조금 길게 늘여 입어야 하며 어떤 옷은 염색해서 입어야 하고 어떤 옷은 모양을 고쳐 입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옷은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수선한 다음에야 남겨 둘 수 있다. 또 어떤 옷은 제사장에게 보인 후 고친다 하더라도 나병의 성질이 있으므로 없애 버려야 한다. 갓 믿은 형제자매들은 주님을 믿자마자 자신의 옷을 한 벌씩 주님 앞에 가져가서 자세히 점검받고 그 옷이 합당한지를 점검받아야 한다. 한 벌씩 주님께 처리받아야 한다.

나는 갓 믿은 형제자매들이 외출할 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입은 옷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옷을 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를 단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결코 나병으로 더럽혀진 옷을 입을 수 없다.

갓 믿은 사람들은 자기 옷을 한 벌씩 주님 앞에 가져가 기도해야 한다. 나는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옷이 어울리고 어떤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스스로 옷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 보여야 한다. 여러분은 주님께, 믿는 여러분이 이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이 옷이 합당한지를 여쭙어야 한다. 어떤 것은 버려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수선해야 할 것이며 어떤 것은 전혀 수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옷에 죄가 있는지를 판정하라. 여러분의 의복은 여러분 자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진지하게 처리받아야 한다.(워치만 니 전집, 50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하), 58-59쪽)

연구 문제

1.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란 무엇인가?
2. 어떻게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여쁘게 될 수 있는가?
3. 한 면에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의복과 장식에 관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한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원칙들을 생명의 법의 내적인 인도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하라.

참고 도서 및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22장; 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17장; 워치만 니 전집, 50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하), 37장; 성경의 중점 진리, 3권, 33장